

太極圖說 주돈이(周敦頤)

출생 - 사망

1017년 ~ 1073년

작가 소개

북송(北宋)의 유학자(儒學者)로, 원명(原名)은 돈실(敦實)이고 자는 무숙(茂叔)이며 호는 염계(濂溪)이다. 도주(道州) 출신으로 여러 지방관을 거치면서 치적을 남겼다. 만년에는 여산(廬山) 기슭의 염계서당(濂溪書堂)에서 은거하였다. <태극도설(太極圖說)>을 지어 도학(道學), 즉 성리학의 이론을 마련하였다. 남송의 주희(朱熹)가 그를 도학(道學)의 개조라고 칭하였다.

작품 설명

우주의 근원을 태극(太極)이라 하고 태극에서부터 만물이 생성되는 과정을 도해(圖解)하여 '태극도(太極圖)'를 그리고 그 이론을 쓴 글이다. 태극에서 음양(陰陽), 오행(五行), 남녀(男女), 만물(萬物)이 나오고, 만물 가운데 인간이 가장 빼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중정(中正)과 인의(仁義)의 도를 지키고 마음을 성실하게 하여야 함과,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도덕은 하나라는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작품 내용

無極而太極¹⁾이니라. 太極動而生陽한대 動極而靜하고 靜而生陰하며 靜極復動이라. 一動一靜이 互爲其根하고 分陰分陽에 兩儀²⁾立焉하니라. 陽變陰合하여 而生水火木金土하고 五氣順布하여 四時行焉이라. 五行이 一陰陽也요 陰陽이 一太極也며 太極은 本無極也라. 五行之生也는 各一其性이라. 無極之眞과 二五³⁾之精이 妙合而凝하여 乾道成男하고 坤道成女하니 二氣交感하여 化生萬物하고 萬物生生而變化無窮焉이니라.

무극(無極)이면서 태극(太極)이다. 태극이 움직여 양(陽)을 낳는데, 움직임이 극에 달하면 고요하게 되고 고요하게 되면 음(陰)을 낳으며 고요함이 극에 달하면 다시 움직이게 된다. 한번 움직이고 한번 고요해지는 것이 서로 그 근본이 되고, 음(陰)으로 나뉘고 양(陽)으로 나뉘어 양의(兩儀)가 확립된다. 양(陽)이 변하고 음(陰)이 합해져서 수(水), 화(火), 목(木), 금(金), 토(土)를 낳고 이 다섯 가지 기운이 순조롭게 퍼져 사시(四時)가 운행되는 것이다.

오행(五行)이 하나의 음양(陰陽)이고 음양이 하나의 태극이며, 태극은 본래 무극이다. 오행이 생겨나는 것은 각각 그 성품을 하나씩 지닌다. 무극의 참됨과 음양오행의 정기(精氣)가 오묘하게 합쳐지고 엉기어, 건도(乾道)는 남자가 되고 곤도(坤道)는 여자가 되니, 두 기운이 서로 감응하여 만물을 변화생성하고, 만물이 낳고 낳아 변화가 끝이 없게 된다.

惟人也得其秀而最靈하니 形既生矣에 神發知矣라. 五性⁴)感動하여 而善惡分하고 萬事出矣니라. 聖人이 定之以中正仁義而主靜하사 立人極焉이라.

오직 사람만이 그 빼어난 기운을 얻어 가장 신령스러우니, 형체가 생기고 나서 정신이 지혜를 발휘한다. 다섯 가지 성품이 느끼고 움직여서 선(善)과 악(惡)이 나뉘고 만사가 나타난다. 성인(聖人)이 중정(中正)과 인의(仁義)로 그것을 정하고 고요함을 주장하시어 사람의 표준을 세우셨다.

故로 聖人은 與天地合其德하고 日月合其明하며 四時合其序하고 鬼神合其吉凶이라. 君子는 修之라 吉하고 小人은 悖之라 凶이라. 故로 曰立天之道가 曰陰與陽이요 立地之道가 曰柔與剛이며 立人之道가 曰仁與義라하며 又曰原始反終이라. 故로 知死生之說이라하니⁵) 大哉라. 易也여. 斯其至矣로다.

그러므로 성인(聖人)은 천지(天地)와 그 덕이 합치되고 일월(日月)과 그 밝음이 합치되며, 사시(四時)와 그 질서가 합치되고 귀신과 그 길흉이 합치된다. 군자는 이것을 닦는지라 길하고 소인은 이것을 거스르는지라 흉하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하늘의 도(道)를 세운 것이 음(陰)과 양(陽)이고 땅의 도(道)를 세운 것이 유(柔)와 강(剛)이며, 사람의 도(道)를 세운 것이 인(仁)과 의(義)이다.”라고 하며, 또 말하기를, “시작을 따지고 끝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죽음과 삶의 의미를 안다.”라고 하였으니, 위대하다. 주역(周易)이여! 여기에서 아마도 지극하리라.